

광주시·5개 자치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공동 착수

광역시 첫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사업추진 방식' 진행 자치구, 9월 2일~30일 후보지 신청...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원회수 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에 공동 착수했다. 광주시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원회수 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이번 광주자원회수시설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 광주시와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을 합의했다. 5개 자치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

는다.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필요시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광주시도 폐기물시설추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안내서 등 세부지침도 모두 공개해 시민 이해도와 행정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로 변동이 없으며, 신청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시설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과 추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수 50%이상 동의와 신청부지에 대한 자체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

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으며,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 개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오는 28일까지 이메일(8bangminam@korea.kr)로 접수받아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경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자치구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에어컨 냉각탑수 감염병 예방 검사 22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북구청 옥상 냉각탑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증과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할 냉각탑수를 채수통에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무안-중국 잇는 하늘길로 관광활성화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 아시아 최대 중국 남방항공 지사장과 논의

광주시가 중국을 잇는 하늘길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왕선 중국 남방항공 한국지사장을 접견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광주 관광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노선 신설, 전세기 취항, 지역 항공학과 인재 채용 등을 협의했다. 남방항공은 1991년 설립된 중국 3대 국영 항공사 중 하나로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240개 항공사 중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항공사다. 왕 지사장은 "중국 관광객, 광주-전남에 있는 기

업체, 중국 유학생들의 항공 이용 편의를 위해 무안공항 북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중국 국영 3대 항공사이자 광주시와 자매도시인 광저우에 본사가 있는 남방항공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광주는 맛·맛·의의 고장으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스토리가 많은 매력적인 도시다. 또한 관광매력 요소 중 하나인 북합소핑물 등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며 "남방항공과 힘을 모아 문화예술, 의료관광 분야에 많은 이벤트가 생기고 사람들이 찾길 바

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남방항공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왕선 지사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인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방항공을 알리고 브랜드 마케팅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중국 광저우에서 관광객 유치에 대해 광저우 3대 여행사와 광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8~10월 중국 저장성에서 한·중 교류협력과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양식장·축산 농가 폭염 피해 극심

5개 시·군 고수온 피해액 39억원...닭·오리·돼지 19만 마리 폐사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해 전남의 양식어가와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여수·고흥·장흥·신안·완도 등 5개 시·군에서 양식어류 138만 5000마리(피해액 39억 3000만원)가 고수온 여파로 폐사했다. 지역별로는 여수(5종·65만 1000마리)의 폐사 규모가 가장 컸고, 신안(45만 2000마리), 고흥(25만 5000마리)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2021년에만 7~8월 고수온으로 4개 시·군 311개 어가가 키우던 양식어류 폐사(754만 3000마리)와 홍합·굴·가리비 423줄 폐사로 8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8~10월 고수온에도 11개 시·군 3437개 어가가 95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22만 1277척), 미역(10만 5187줄), 새고막(1814 t) 양식 어가 등은 고수온으로 상품

가치가 없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 2022년에도 신안군(64개 어가)에서 9억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에는 5개 시·군 376개 어가에서 218억원의 피해를 봤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전남도는 21일 기준 폭염으로 인해 모두 19만 3707마리의 닭·오리·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닭(16만 4026마리)이 가장 많았고 오리(1만 3163마리), 돼지(6482마리) 등의 순이었다. 다만, 폭염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2018년의 경우 97만 1000마리가 폐사했고, 기후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2023년(6만 9000마리), 2022년(7만 5000마리), 2021년(6만 2000마리), 2019년(37만 8000마리) 등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2024 사회조사' 오늘부터 4905가구 방문

광주시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2024년 광주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사회조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 생활 실태와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해 향후 정책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광주지역 표본 4905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항목은 삶에 대한 만족, 가족, 보건과 건강, 사회참여와 사회통합, 소득소비자산, 안전, 환경 등 9개 부문 64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부재 또는 응답자 요청 때 '응답자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를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2024년 광주 사회지표' 책자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표하고, 관계기관과 학교 등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